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현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강은미 김경자 김광호 김기안 김기택 김병을 김외자 김재인 김종선 김진희 김현욱 문영원
 박부웅 박해진 박복순 배경철 백성원 윤 숙 윤병호 윤승한 윤예원 이육남 이윤욱 이종문
 이찬호 이한철 이향교 임만순 장순복 장윤주 정영심 정경애 조옥자 주경덕 지상건 채희춘
 최선미 최성현 최정희 주재호

☞ 선교현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강은미 김광호 김기안 김명중 김병을 김외자 김정자 김현욱 박희영 박복순 배경철 안지영 유은자
 윤 숙 윤승한 이명희 이복현 정영심 조옥자 지옥분 채희춘 최기훈 최정희 홍한표

☞ 감사현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필레 문수경 이송이 김경엽 김경자 김병을 김중익 김춘화 김현구 박부웅 방복순 신미식 여운희
 윤병호 윤예원 이미자 장성자 전영구 채영업 최봉순 최상걸 김남선 무 명 유초등부 유치부

☞ 일천번제현금
 이진우 김명숙 김민성 김수현 김정훈 김준구 김준현 김지훈 김춘화 김혜란 박민서 박순자 방복순
 백경자 송백현 심순옥 안지영 양영욱 이경자 이기자 이상이 이소은 이승애 이육남 임승주
 전병구 정옥순 정해지 주성탁 최귀남 최선미 황영옥 김민혁 무 명 양일석 이노을 이설아 전지선
 정승현

☞ 월정현금

주간 성경연구

31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빌립소서 2장 1절 ~ 11절		
월요일	빌립소서 2장 12절 ~ 18절	목요일	빌립소서 3장 12절 ~ 21절
화요일	빌립소서 2장 19절 ~ 30절	금요일	빌립소서 4장 1절 ~ 7절
수요일	빌립소서 3장 1절 ~ 11절	토요일	빌립소서 4장 8절 ~ 13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준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욱 장명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혁 방석대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김제호	
	전 도 사	이필레	
	존전임전도사	김두산	
	교육전도사	이송이 문수경	
찬양대	지휘자	활 쉐 루 야 : 김한나 시 온 · 에 멘 : 최원지	훈 산 나 : 김안나 엔 젤 : 이난수
	반주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오영주 김미희 공희라 정희연
		블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솔리스트	김안나 정예슬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 국 : 김정숙	이 집 트 : 김신숙
		수 리 남 : 안석렬 이성욱	A X 국 : 김해월
		미 국 : 김다니엘	A X 국 : 이분옥
	태 국 : 최옥희	모 잠 비 크 :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태 국 : 박경환 이순연
		맥 시 코 : 김홍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활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2019. 07. 28. 주일 예배 설교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
 마가복음 9장 30-37절
 설교자 이진우 목사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고, 종업원과 고객의 커뮤니터를 우선으로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1977년 AT&T에서 경영 관련 교육과 연구를 담당했던 로버트 그린리프가 저술한 《Servant Leadership》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리더십의 한 형태입니다. 사실 이것은 경영 뿐 아니라 국가의 운영이나 교회 심지어 가정에서도 필요한 리더십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섬김보다는 섬김 받는 것을, 낮아짐보다는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섬김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군림하려는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상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되어온 사람들의 본성일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똑같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사는 스승인 예수님의 그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었고,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달랐던 그것, 과연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1. 제자들, 높아짐을 토론하다.
 -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자신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다시금 제자들에게 확신시키셨습니다. **31절을 보라.**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삼 일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보다 다른 데 정신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 내내, 서로 누가 더 큰지 논쟁했던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서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30절을 보면, “그 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 사실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임에도 조용한 길을 택하여 요단강 계곡을 따라 도시를 피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길이 험하고 인적은 드물고 어느 길보다 더 먼 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험하고, 인적이 드물고, 멀리 돌아가는 길을 가는 내내 서로 누가 크지에 대하여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을 보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나 하고 쟁논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크다.” 라는 헬라어는 “메가스”입니다. 이 단어는 비교급에 최상급입니다. 그렇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높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논쟁이라는 “디엘레크데산” 이라는 말은 두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 “~을 통하여”, “논쟁하고 말로 토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서로 누가 최고로 높고 크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한 길, 우리가 없는 길로 가버나움까지 가시는 이유는 그 조용한 길을 걸으시며 그들에게 더욱 간절함으로 심자가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묵상하지 않았고, 오로지 누가 더 높은 사람이고, 장차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열면 토론을 벌리며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절에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시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나 하시되.”**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질문 앞에서 제자들은 한 마디도 못했습니다. **34절을 보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나 하고 쟁논하였음이라.”**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도 부끄러운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찌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 낮아짐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할지 고민합니다. 심자가보다 왕관을 더욱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우리를 위해 심자가를 기꺼이 지신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너무도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고,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으며 섬기는 종으로 심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 낮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김의 종, 사랑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2. 예수님, 낮아짐을 가르치시다.
 - 예수님의 관심사는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이란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말구유에 누우신 아기로 오셨고, 마침내 심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곳에 있었지만, 사실 정반대의 길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의 진로를 수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어린이가 하나님을 품에 안으신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본문 36-37절입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어린이보다 더 낮아져 그를 영접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동시에 영접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세상은 높은 사람을 최선을 다해 영접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가장 낮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십니다. 만일 우리의 눈과 관심이 높은 사람만을 향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 선한 영향력을 널리 끼치기 원한다면 말로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포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차라리 솔직했고, 우리는 욕심과 야망을 때론 숨길 뿐입니다. 높은 자리는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영광과 칭찬을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같은 침대에 누운 두 사람이라도 서로 정반대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소망하는 것이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심자가를 생각하셨고, 제자들은 높아짐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입니다. 제자들의 꿈이 예수님의 꿈과 일치되어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꿈도 예수님이 바라시는 낮아짐으로 조정되어야 비로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SINCE 1975

No. 45 - 31

2019. 08. 04.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담임목사	이진우
Senior Pastor	Yee, Jin Woo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오전에배

[1부] 오전 7시 사화: 최 성 현 장 로

[2부] 오전 9시 30분 인도: 김 제 호 목 사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묵 도 ----- 할렐루야찬양대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양 ----- 찬송가 191(통427)장 ----- 다 같 이
 (Praise) 내가 매일 기쁘게

통 성 기 도 ----- 다 같 이
 (Prayer all together)

대 표 기 도 ----- [1부] 채 만 기 집 사
 (Prayer) [3부] 최 성 현 장 로

성 경 봉 독 [1,3부] 마가복음 9장 38~50절[신약p.70] 김 순 화 권 사
 (Scripture) [2부] 에베소서 5장 31~32절[신약p.316]

찬 양 [1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가200장] 다 같 이
 (Anthem) [3부]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홍지열] 할렐루야찬양대

설 교 [1,3부] 단호하게, 또 단호하게 이 진 우 목 사
 (Sermon) [2부] 순결한 삶 김 제 호 목 사

헌 금 봉 헌 [1,2,3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같 이
 (Offering)

새 신 자 환 영 ----- 다 같 이
 (Introduce new comer)

봉 헌 기 도 -----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 찬송가 463(통518)장 ----- 다 같 이
 (Praise) 신자 되기 원합니다

축 도 -----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에 배 후 찬 양 [1,2부]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같 이
 (Marching on Praise) [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오후 3시 사화: 배 경 철 장 로

묵 도 ----- 시 온 찬 양 대

성 시 ----- 시편 31편 23~24절 ----- 사 회 자

간 구 ----- 사 회 자

찬 양 ----- 찬송가 369(통487)장 ----- 다 같 이
 기 도 ----- 김 경 영 집 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성 경 봉 독 ----- 시편 90편 1~17절[구약 p.869] ----- 사 회 자

찬 양 ----- 시 온 찬 양 대

설 교 ----- 지혜로운 마음 ----- 이 진 우 목 사

광 고 ----- 이 진 우 목 사

찬 양 ----- 찬송가 405(통458)장 ----- 다 같 이
 축 도 -----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 이 진 우 목 사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김 제 호 목 사

찬 양 ----- 시 온 찬 양 대

기 도 ----- [다음주:이명희권사] ----- 이 언 속 권 사

성 경 봉 독 ----- 디모데전서 5장 17절[신약p.341] ----- 인 도 자

설 교 ----- 장로교의 유래 ----- 김 제 호 목 사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아유치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9:30 로템나무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9:30 로템나무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청 년 부	주 일 오후 2:00 청년부실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본당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전 도 특 공 대	목요일 오후 2:00 교회식당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오전 5:00 본당		

교회소식

○ 광고

- [금요기도회]

이번 주(8/9) 금요기도회는 “중고등부” 주관으로 합니다.

- [주일학교 여름행사 일정]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자녀들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8월 8일(목)~10일(토) 저녁노을하우스(영종도) BUILD UP
 인천시 중구 운남동 1608-26

- [장학위원회 모임]

2019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11일) 오후 2시 로템나무에서 있습니다. 장학위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학위원회 헌신예배와 2019년도 2학기 장학금 전달식이 18일 주일 찬양예배 시에 있습니다.

- [8월 행사 안내]

8월 8일(목)~10일(토) 청년부수련회(영종도)

8월 18일(주일) 장학위원회 헌신예배

8월 25일(주일) 주일학교발표회

○ 모임

이 번 주	다 음 주
	*여전도회 월례회(3부 예배후/본당) *장학위원회 모임(2시/로템나무)

○ 교우소식

- 맹관순 집사(소망3/고척7) 구대구로병원 입원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종 식	오전식사	주방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공인석 집사	홍은민 학생	윤병호 장로, 양영욱 권사/최기훈 장로, 정계숙 권사	최성현 장로	사랑2 개봉2 개봉3	영아 유치부
다음주	이선분 권사	김민지 집사	에스더여전도회	윤영준 장로	에스더여전도회	요한 남전도회

8월	순 서	1 부	3 부		찬 양 예 배		수요기도회
	기 도	기 도	성경봉독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기 도
31주(4일)	채만기 집사	최성현 장로	김순화 권사	배경철 장로	김경엽 집사	이언숙 권사	
32주(11일)	김경엽 집사	윤영준 장로	서영숙 권사	박권재 장로	채만기 집사	이명희 권사	
33주(18일)	최상걸 집사	윤조훈 장로	김순욱 권사	임만순 장로	김종진 집사	전봉순 권사	
34주(25일)	박종삼 집사	강영성 장로	송명숙 권사	최성현 장로	최상걸 집사	임영득 권사	
예배안내	윤조훈 강영성 김병욱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